

한솔제지, 오규현 대표이사 선임

한솔CSN은 김성욱 대표이사 발탁 ... 경영인재 적재적소에 배치

한솔그룹은 한솔제지의 새 대표이사로 오규현 한솔제지 영업생산 총괄사장을 임명하는 등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.

한솔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경영자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원칙을 적용해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1월27일 발표했다.

한솔CSN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성욱 한솔CSN 영업본부장이 발탁됐다.

또 그룹 경영기획실장에는 이재희 부사장, 한솔LCD 경영지원실장에는 김용화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고 한솔제지 한관희 상무 등 9명이 임원으로 승진했다.

한솔제지 오규현 대표는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한솔제지와 펜아시아페이퍼를 거쳐 한솔홈데코 대표를 역임한 후 한솔제지 영업생산 부문을 총괄해왔다.

□승진 ◇한솔제지 ▲대표이사 오규현 ▲상무 한관희, 강병윤 ◇한솔CSN ▲대표이사 김성욱 ◇한솔케미칼 ▲상무 박두봉, 심병섭 ◇한솔LCD ▲경영지원실장 김용화 ▲상무 강기현 ◇아트원제지 ▲상무 김진천 ◇한솔개발 ▲상무 최정순 ◇한솔그룹 ▲경영기획실장 이재희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1/27>